

 인천신용보증재단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 인천광역시
	배포일자	2025년 11월 24일(월) (2매, 사진별도)	
담당 부서 인천신용보증재단	책임자	서인천지점 최병헌 지점장 ☎ 032-569-0347	
	담당자	서인천지점 오근태 주임 ☎ 032-569-0323	
보도시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「서구 소상공인 종합지원 2차 협의회」 개최
- 서구 소상공인 지원 민·관·공 거버넌스 강화로 정책 효과 제고 -
- 경제산업위원회 김유곤위원장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정책개발 노력 -

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(지점장 최병헌)은 21일, 서구 소상공인 및 경제 주체들과 서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「서구 소상공인종합지원 협의회」(이하 ‘협의회’ 라 한다)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이날 인천광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유곤위원장 “(서구 제3선거구)이 참석하여 소상공인의 실태 및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상공인의 지원 정책과 의회의 역할을 위한 ‘현장 중심의 의정활동’ 을 펼쳤다.
- 협의회는 자치구·상권별 특성을 살린 소상공인 정책 개발 제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체이다.
- 제1차 정기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서구 소상공인 성장도약을 위한 ‘KB국민은행 협약보증’ 을 통해 대출금리를 최대 1% 인하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었고, 협의회 위원중 소공인협회 인천지회장의 요청한 ‘소공인 집적시설 경영지원 설명회’ 를 개최하여 금융컨설팅 등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였다.

- 이날 협의회는 서구청 경제정책과장, 서구 소재 단체(소상공인연합회, 소상공인협회), 재래시장과 골목형상점가(강남시장, 원적로 골목형상점가) 상인회, 금융기관(하나은행, KB국민은행, NH농협은행)과 인천 서구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(주)에이비씨금융 대표가 참석하여
 - “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‘서구 이차보전 및 재단 교육이수자’에 대한 대출금리 1년간 2%, 보증료는 0.1% 경감하는 특례보증 지원”
 - “1인 대표 소상공인의 재단 및 금융기관 방문에 대한 시간적 제약 해소를 위해 ‘원-스톱 현장지원 이동출장소’ 운영”
 - “금년 유난히 폭우에 대한 피해가 많았던 서구의 피해기업에 대한 ‘재단 정책자금’ 지원으로 복구에 많은 도움이 있어, 앞으로도 자연재해, 화재 등 재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”에 대한 안전발의 및 의결되었다.

- 앞으로도 협의회는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서구 소상공인·자영업자 경영 애로 해결책 모색, 정책 제안 및 추진과제 도출,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협력 등 서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운영된다.

-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유곤위원장은 “최근 산업, 경제, 환경 분야 등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‘이제 소상공인도 패러다임의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’며 ‘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·관·공 경제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상호협력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서구 소상공인의 부흥을 위해 참된 시의원으로서 일해야겠다’ 라면서 ‘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포함해 직접 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되고 준비된 창업, 안정적인 경영 등 인천 자영업 폐업을 1위의 오명을 벗을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 확대 등, 민·관·공과의 협력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” 고 밝혔다.

- 최병헌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장은 “최근 소상공인 관련기사는 ‘소상공인 벼랑끝, 더 이상 끝이보이지 않는 생계싸움’ 등 지금, 소상공인 위기감이 가장 크다” 라면서, “지난 1차 정기회의 안건이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지원 정책으로 효과가 있었다. 금번 안건으로 의결된 ‘금융비용 및 보증료 경감’ ‘원스톱 현장 지원’ 이 금년내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” 라면서 “앞으로 서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.” 라고 전했다.